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0월 30일(주일) 제1121호

50대 동기동창들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버킷리스트'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11월 28일 19시 서빙고 본당,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전도대상자 모집...통합데스크, 교회홈페이지, 목회행정실

아주 특별한 맞춤형도집회가 열린다. 50대 동기동창들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버킷리스트'가 11월 28일 오후 7시 서빙고 본당에서 막 오른다.

버킷리스트는 일생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이라는 뜻이다. 한평생 소중한 인연을 이어온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버킷리스트에 쓰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전도사역본부에서는 전도대상자 2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주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1층에 설치되는 통합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평일에는 목회행정실이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이번 맞춤형도집회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요청자 기도모임이다. 11월 7일과 14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2단계는 11월 28일 막 오르는 맞춤형도집회다. 저녁식사, 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메시지는 이

재훈 담임목사가 전할 예정이다. 가수 윤형주, 방송인 이성미, 배우 강석우, 브라스밴드 브라스통 등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3단계는 12월 중에 실시되는 세례교육 및 세례식이다.

온누리교회는 다양한 세대와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도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65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한 '행복드림콘서트', 남편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비긴어게인', 순맞춤도집회 등에 이어 50대 동기동창들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버킷리스트'로 또 하나의 풍성한 전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는 "50대 동기동창들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버킷리스트는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소중한 친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좋겠다"고 권면했다.

문의: 02-3215-3214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러브소나타 오사카 24일 앞으로

11월 4일과 15일 봉사자 교육

(양재 화평홀) (서빙고 두란노홀)

러브소나타 오사카가 24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사카 현지는 집회 준비가 한창이다. 현재까지 협력교회 73개가 모였다. 오사카와 인접한 나라현과 와카야마현, 효고현, 교토 교계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오사카 실행위원회는 협력교회 100개를 목표로 막판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서울 본부도 막바지 행사준비에 돌입했다. 남양주 여성사역팀, 서빙고와 양재 권사회, 수원과 부천 연합팀, CEO스쿨, CEO포럼팀, 스테프 등 봉사자 520명을 대상으로 봉사자 교육을 준비 중이다. 11월 4일 오후 7시30분 양재 화평홀,

11월 15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일본과 오사카 교계 현황, 현지교회 정보, 지역소개, 일본어 노래 배우기, 종이비행기 접기 등을 가르쳐 줄 예정이다.

러브소나타 오사카는 11월 22일과 23일 양일 간 '일어나라 오사카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막 오른다. 11월 22일에는 박종길 목사, 김하중 장로, 이기복 교수가 교회세미나에서 강의하고 저녁에는 가스펠나이트 오사카 집회가 진행된다. 11월 23일에는 리더십포럼이 열리고, 저녁에는 러브소나타 오사카 집회가 개



최된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 박진아 작가(샌드애니메이션), 온누리워십콰이어,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배재철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문의: 02-749-1149

온누리교회 파트교역자 청빙

11월 4일까지 이메일 접수

온누리교회 성인, 대학청년부, 차세대 파트교역자를 청빙한다. 지원 자격은 목회의 소명과 인격을 구비한 1977년 1월 이후 출생자로,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 MDiv, 교육대학원(기독교교육 전공), 신학, 기독교육학과 학사과정을 마치고 MA 또는 MACE 재학 및 졸업자여야 한다. 온누리교회 파트교역자 청빙과정은 서류 및 설교심사, 인사위원회 개별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 및 설교심사 합격자는 11월 6일 개별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파트교역자 청빙에 응시할 교역자는 11월 4일까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지원 분야 설교 원고 1부, 대학 졸업증명서 복사본 1부, 신대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복사본 1부, 신분증 복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이메일(onnurihr@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 양식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문의: 02-3215-323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확대당회

일시: 11월 5일(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목상하는 목수를 찾아서 3

봉사의 달인 의료선교팀(CMN) 정찬의 집사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정찬의 집사는 의사로서 충실하게 사는 것 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삶이 있다. 봉사하는 삶이 그것이다. 그는 장애인 후원회, 장학회 활동, 해외의료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 가지도 잘하기 힘든 세상에 어찌 이렇게 다양한 일을, 그것도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힘들 때도 많죠. 살다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요. 그럴 때마다 문제와 씨름한다고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답이더라고요.”

자신이 하고 싶거나, 남이 시켜서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하다는 의미였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을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뜻도 담겨 있었다. 본인의 힘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에 아내의 응원도 큰 힘이 된다고 했다.

그는 서울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기차를 타고 출퇴근 하고 있다. 아내가 지지해주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내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이 크고 깊다.

“10년 이상을 한결같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아내에게 늘 고맙죠.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사랑하지요. 또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누군가를 도와주며 살겠다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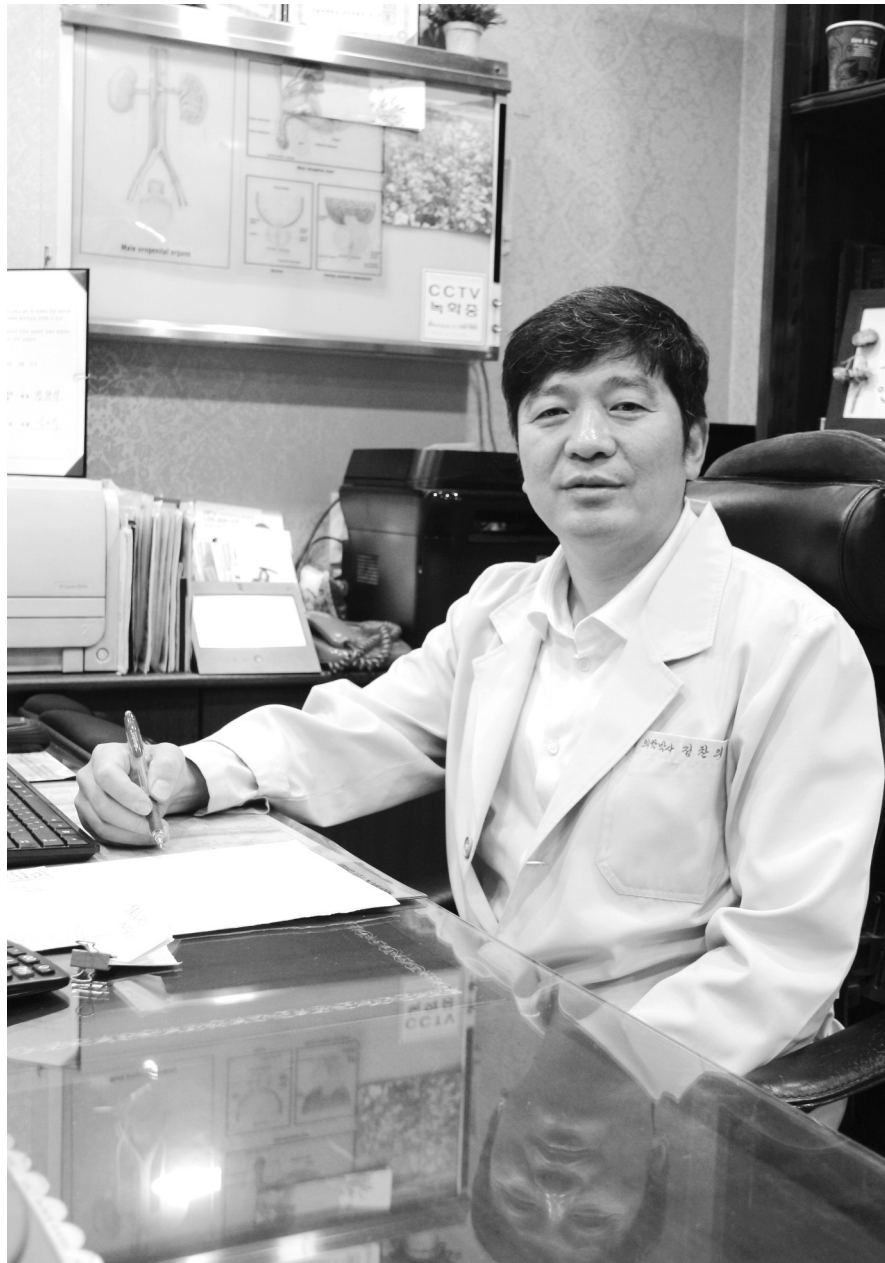
천사 같은 남편에 천사 같은 아내다. 이 아름다운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얼마나 선행까. 벌써부터 그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됐다. 아버지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 것이 눈에 선하다.

“내 꿈은 남을 도우며 사는 것”

그가 남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다짐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법조인이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이 달라졌다.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으로 선행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당시 제 책상에 ‘마음 그윽한 곳에 인간을 사랑하는 기쁨을 갖게 하소서. 이 기쁨이 미소로 변하여 언제나 스며 나오도록’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는데 그 글귀의 영향도 받았고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외국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봉사를 시작한 것은 1992년이다. 의료원 재직 당시 환자로 왔던 어르신을 치료했던 일이 계기가 되었다. 그 어르신은 ‘노인의 집’이라는 곳에서 지내고 계셨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했고 지원도 미미했다. ‘노인의 집’은 개인이 운영하던 곳여서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서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목상하는 목수를 만났다. 일터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진짜 목상하는 목수를 말이다. 과연 그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번에 만난 목상하는 목수는 천사가 따로 없다. 장애인과 편모·편부·조손가정 아이들을 섬기고, 의료봉사에도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선교팀(CMN) 정찬의 집사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서 피부·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는 그를 만나러 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2001년 어느 날 원장님이 찾아 오셔서 이제 우리나라에 노인복지가 정착된 것 같으니 편모·편부·조손가정의 청소년을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조부모들이 손자손녀들을 데리고 병원에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랑의 다리 장학회’를 시작했다. 편모·편부·조손가정의 청소년을 돕는 장학회다.

사실 그는 서울에서 개원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본인이 고사했다.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자신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눈에 밝혀 도저히 떠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사랑의 다리 장학회를 통해 편모·편부·조손가정의 4~6학년 아이들을 선정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모두 자비방이다. 한 달에 한 번은 서울 송실중학교 교목목사를 초빙해 그 아이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3~4일 동안 캠프도 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학금 보다 관심입니다. 그 아이들이 조그마한 관심만 보여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 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 후원회는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전문인

들이 회비를 모아 8개 장애인단체를 돕는 모임이다. 요즘은 국내에 무의촌이 거의 없어 의료봉사가 큰 의미가 없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는 병원문턱이 높다.

“지난 6월에는 도움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직접 모시고 와서 의료봉사와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참가했던 모든 이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시다.”

이와 같이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아무리 숨겨도 보석은 빛난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봉사분야는 바로 의료봉사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와 케냐를 올리는 세네갈을 다녀왔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무료진료소를 운영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10년 동안 의료봉사를 하겠다는 결심에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온누리교회의 의료선교팀인 CMN(Christian Medical Network)이 생각났다. 곧장 참여의사를 밝히고 아프리카 르완다로 떠났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 수술실이 하나밖에 없어 아침부터 밤 한 끼도 안 먹고 기다리는 환자를 모른척할 수 없어서 새벽까지 수술을 했다.

“새벽 늦게까지 수술이 이어지니까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마지막 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숙소까지 걸어가면서 본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과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의 선행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워낙 자신의 활동에 대해 말을 아끼기 때문이다. 아무리 숨겨도 보석은 빛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제4회 세종시 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제가 잘나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 봉사하면서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인도해주셨습니다.”

목상하는 목수로 살고자하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무조건 집니다. 크리스천이 말씀과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교회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시대 요셉을 추천 받습니다
문의: 02-3215-3196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한자 사람 ‘인’은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사람의 존재를 잘 설명해줍니다. 믿음의 여정에도 서로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떤 뉴스나 정보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본받고, 배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전도여행에 많은 협력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의사 누가도 사도 바울의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가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바나바와 실라도 사도 바울과 친밀한 동행자가 되어서 그의 여정을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편지를 전해주는 대리자가 필요했습니다. 잠언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며 빛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서 함께 복음의 역사에 참여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문안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로마서 한 장을 할애해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들과 함께 이뤘던 것들에 대한 감사로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와 형제라고 불리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감옥에 있을 때 곁에서 도왔던 인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 이 두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도 바울은 갇혀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자유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홀로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외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더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갇혀 있고, 홀

로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고, 외롭고, 갇힌 상황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곁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두 사람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영적인 성숙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을 파송한 이유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 구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 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빌 1:27).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 나가는 것’이다. 바로 이 모습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빌 2:2-4).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품고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자기의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일도 돌아보는 모습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21절).

이 말씀은 디모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에 몰두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30절).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구하고, 그 일의 목적이 자기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다툼과 분열과 다툼의 중심에 가보면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임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위치, 자신의 성취, 자기 자신의 입지, 자기 자신의 욕심들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추구했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편지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하루속히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되지 않아 디모데를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에바브로디도는 즉시 보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에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19절).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그를 보내고 싶습니다”(23절).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 싶은 것은 디모데가 그곳으로 감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빨리 안정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고 싶은 사역자가 가야 그 교회가 안정된다는 마음입니다. 자신에게도 필요하지만 그가 교회에 더 필요해서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의 고향인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2차 전도여행 때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믿음을 전해 받았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계고, 아버지는 헬라계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적인 필요에 의해서 디모데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2차 전도여행에서 만나 3차 전도여행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되기도 했고, 3차 전도여행 때에는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감옥에 갇혔을 때는 빌립보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히브리서 기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히 13:23).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디모데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장에 디모데가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흠여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디모데에 관한 소식을 편지로 전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디모데는 여러 교회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20절).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디모데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돌볼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13면에 계속〉

국내 10개 캠퍼스 순방

We're Onnuri

2. 남양주 온누리교회

가족 같은 끈끈함으로 함께



구리역 전도팀

본지에서는 예수바보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국내 10개 캠퍼스를 순방하고 있다. 어떤 성도들이 모여 어떠한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교계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남양주 온누리교회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국내 네 번째 캠퍼스 교회다. 2004년 11월 7일 창립했다. 현재 1,000명의 성도가 예배드리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기도 남양주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포천과 의정부, 동쪽으로는 양평과 가평, 서쪽으로는 구리, 남쪽으로는 광주와 하남이 있다. 가평도 그리 멀지 않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인근 도시는 대부분 서울의 위성도시로 30~40대 젊은 주민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남양주 온누리교회에는 젊은 성도가 유난히 많다.

젊은 지역, 젊은 교회 ... 새벽기도에서 태동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지리적 특징을 목회에 고스란히 반영했다. 젊은 부부들이 가장 원하는 차세대 양육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 1,000명 중에 차세대가 400명이나 된다. 그만큼 차세대 양육을 잘하는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과 탈북민들을 섬기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몸과 마음 둘 곳 없어 외로워하는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

차세대 양육과 이주민, 탈북민 등 외로운 이웃 섬기는데 앞장
경기 북동부 지역 넘어 강원도까지 품겠다는 원대한 꿈꾸는 중

어 함께 울고 웃어주고 있다. 이와 같이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차세대, 이주민, 탈북민 등 교회 구성원 모두가 가족 같이 편안하고, 끈끈하게 지내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남양주공동체 소속 성도들의 새벽기도모임에서 태동했다. 2002년 한 성도가 남양주 인근 지역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까지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새벽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당시 남양주공동체를 담당하던 이재훈 목사가 매일 서울에서 그곳을 오가며 새벽기도모임을 인도했다. 20여 명으로 시작한 새벽기도 모임이 80여명으로 커지면서 남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북동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이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초석이 되었다. 당시 새벽기도모임이 지금의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만든 밑거름이다.

이재훈 목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이기훈 목사(현 사회선교부 담당)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새벽기도회를 시작한지 14개월이 지난 2004년 11월 7일, 정식 캠퍼스 교회로 발돋움했다. 경기도 북동부 지역에서 'Acts29 비전'을 써내려가기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그렇게 창립한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12년 동안 지역사회와 경기도 북동부 지역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부단히 힘써왔다. 20여 명이 참석하는 기도모임에서 시작된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현재 1,000명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부흥했다. 이기훈, 안광복, 이기진, 백상욱 목사를 거쳐 안광국 목사

가 담당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 이보다 더 좋은 교회 없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주일풍경이 정말 재미있다. 놀이동산을 방불케 한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기에 이보다 좋은 교회는 없다고 소문이 났을 정도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예배와 양육'이다. 남양주 차세대는 주일예배와 소그룹 나눔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말씀이 차세대 신앙의 틀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말씀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와 놀이로 말씀을 교육하고 있다. 주중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꿈아이놀이터, 키즈바이블, 키즈메모리, 선교하는 바울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 비결은 '가족 같은 교사공동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차세대에게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만큼 교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남양주 차세대에는 84명의 교사가 봉사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가족 같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연상될 만큼 끈끈한 관계를 자랑하고 있다. 교사와 교사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다. 차세대와 교사, 교사와 부모의 관계가 얼마나 다정하지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친형제 자매로 오해하기 딱 좋다. 11년 동안 남양주 영

아부를 섬긴 김기선 성도는 "차세대가 천정 같다"고 말한다.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환경에서 성장한 차세대들이 청년이 되면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하여 교사가 된다. 남양주 대학청년부 J1(Jesus One)공동체 청년 대부분이 차세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세 번째 비결은 '함께하는 부모'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이 부모인 만큼 남양주 차세대에서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가 나서서 자녀들이 부모들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족 캠프, 가족 말씀암송대회 등을 개최해서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회 사랑하고, 지역사회 사랑하는 청년들

남양주 대학청년부 J1공동체(Jesus One)는 작지만 알차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청년 50여 명이 예배드리고 있다. J1공동체의 강점이 무척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전도에 적극적이라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다. J1공동체에는 특별한 전도팀이 있다. 바로 '구리역 전도팀'이다. 2년 전 한 형제가 매주 토요일 해 뜨는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까지 구리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일정에 J1공동체 청년들이 동참하고 있다. 예수의 사랑이 J1공동체 청년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울고, 함께 웃는 ‘남양주 온누리’



▲ 차세대와 함께하는 주일예배



▲ 아웃리치에서 만난 소녀가 차세대 학생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구리역 전도팀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물하세요’라는 표어를 내걸고 작은 돌에 성경말씀을 적어 시민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그 작은 돌을 선물 받은 시민들은 그것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에게 다시 선물한다.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외에도 복음팔찌를 만들어 선물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구리역 광장에서 기독교영화 상영하기도 했다. 2년째 이어진 적극적인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공격적인 전도활동 때문에 전도라면 치를 떨던 주민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J1공동체 청년들은 선교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만 2명의 청년들이 FA(Frontier Agency movement) 훈련을 받고 단기선교사로 떠났고, 내년에도 2명의 청년이 FA선교사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서로가 서로에 본(本)이 되고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교회 사랑과 지역사회 사랑이 유난히 깊다.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본이 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성인 성도들이 앞장서서 교회 사랑과 지역사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성인 성도들에게는 교회 리더십들이 본이 되고 있다. 남양주 수요 목양예배 출석률이 80~90%에 육박한다. 모든 성도가 예배와 말씀에 충만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성도가 예배와 말씀에 충만하다보니 주차봉사, 안내, 러빙핸즈, 교사, 식당봉사자가 부족할 일이 없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남양주 성인공동체는 순 단위 아웃리치를 도입했다. 지난해부터 매년 한 공동체씩 순 단위로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있다. 올해는 남양주B공동체 성도들이 전국 구석구석을 다

니며 봉사하고, 전도했다. 사정이 딱한 교회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섬겼다. 성도가 단 한 명도 없는 교회를 찾아가 청소하고, 예배하고, 전도한 적도 있다. 대규모 아웃리치만큼 다양한 사역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적은 인원이었기에 전심을 다해 섬길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순이 하나 되는 장점도 있었다.

섬김 하면 남양주 여성사역도 빼놓을 수 없다. 남양주 여성사역은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은 역할을 하고 있다. 남양주 여성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돕는다는 것이다. 또 매주 수요오전여성예배에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교회와 지역사회, 지역교회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매월 한 번씩 교회 인근 상가 상인들과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교제하고, 복음도 전하고 있다.

외로운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

남양주 온누리교회에도 외국인 이주민들과 탈북민들을 위한 예배공동체가 있다. 온누리미션공동체와 탈북민공동체가 그것이다. 2004년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때부터 교회 주변 농장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찾아가 섬겼는데 그일을 계기로 출범한 공동체가 바로 온누리미션공동체다. 매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와 네팔에서 온 형제자매 3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온누리미션공동체는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찾아가고 있다. 함께 울고 웃기 위해서다. 온누리미션 봉사자들이 타국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 주다보면 자연스럽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

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직접 일터를 찾아가 도와주고, 기도도 해준다. “우리 형제 잘 좀 봐주세요”라며 사장에게 부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이 조금은 더더보일지 몰라도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이주민들의 양육에 더욱 힘을 쏟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민 예배에서는 일대일 제자양육 교제에 맞춰 설교를 하고 있다. 덕분에 이주민 일대일 제자양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남양주 탈북민공동체는 아직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공동체는 아니다. 지금은 북한사역팀 성도들이 10여 명의 탈북민들과 모여 교제하고 있다. 남양주 성도들은 일대일로 탈북민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마트가기, 병원가기 등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와준다. 탈북민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다. 탈북민 공동체는 내년에는 정식 공동체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외국인 이주민과 탈북민 등 외로운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고 있다. 앞으로도 이주민들과 탈북민들을 섬기기 위하여 더 많은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작년 봄 남양주 ‘진점’이라는 지역에 약 800평 규모의 교회 부지를 마련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그곳으로 이전한다면 경기도 북동부 지역을 넘어 강원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과 탈북민들을 섬길 수 있다.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해서 차세대, 온누리미션공동체, 탈북민공동체가 더 적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예정이다.

나는 이래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좋아요!

“

참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의 탄탄한 양육과 개척교회 같은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현실 목사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1,000명의 성도들이 가족 같이 서로를 섬겨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정순풍 장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는 교회입니다.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복순 권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외국인 이주민들과 탈북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성철 집사

자연 속에서 풍성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입니다. 주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 박래석 집사

자유롭고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 조순희 성도

새신자와 초신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김기선 성도

”

남양주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

구분	시간	장소
주일 1부	오전 09:00	본당
주일 2부	오전 11:30	본당
주일 3부 (대학청년부)	오후 14:00	본당
영아부	오전 11:30	예꿈홀
유치부	오전 09:00	예꿈홀
유년부	오전 09:00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꿈땅홀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오전 09:00	기쁨홀
온누리미션예배 (인도, 네팔)	오후 07:00 (토요일)	사이닝글로리

섬기는 사람들

안광국 담당목사
박윤현 목사
조병홍 목사
김현실 목사
박승훈 전도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안광국 목사

“오는 12월이면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한 지 꼬박 2년이 됩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매 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한 순간도 빼놓

지 않고 정말 복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예배 집중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조는 성도님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찾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또한 교회에 헌신한 리더십들과 성도님들이 있어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쁜 일, 급한 일 접어두고 목양예배에 나오는 리더십들을 볼 때면 더 잘해야겠다, 더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탈북청소년들은 친자식 같습니다”

느헤미야코리아다음학교 운영하는 전존, 전사라 부부

탈북청소년들을 친자식처럼 섬기는 성도가 있다. 서빙고공동체 전존, 전사라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양재동에 있는 느헤미야코리아다음학교(이하 다음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다. 그들 부부가 탈북청소년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 국민일보 등 주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할 정도다.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다음학교를 찾아갔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반갑게 맞아주는 학생들의 표정이 인상 깊다.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그들을 보는 것 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이토록 환대해주는 그들은 모두 탈북청소년들이다.

“탈북청소년들은 따뜻하게 안아주기만 하면 보석처럼 빛나는 아이들이에요.”

그 말을 건네는 전존, 전사라 부부는 보석보다 더 반짝였다. 탈북청소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들 부부에게 탈북청소년들은 친자식과 같다. 그냥 품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뿐이라고 했다. 예수님처럼 말이다.

전존, 전사라 부부는 미국에서 사업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렸고, 두 아들도 잘 성장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도, 남부러울 것도 없었다. 매일이 감사의 삶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인 전존 성도가 50세가 되던 해였다. 남편은 안정을 추구할 시기에 그의 생각은 달랐다.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50세는 인생에서 황금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시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때 떠오른 것이 고국, 대한민국이었다. “고국을 생각하니 분단의 아픔이 떠오르더라고요. 탈북민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도 미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봤으니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되더라고요.”

2007년 전존, 전사라 부부는 미국의 모든 풍요로운 삶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왔다. 목적은 딱 한 가지였다. 탈북민을 품고, 섬기는 것이었다.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교육이었죠. 선교

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와 교회를 세운 것과 같아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요.”

때마침 지인이 탈북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다. 지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쉬게 되면서 그들 부부가 그 학교를 운영하게 됐다. 정말 온 마음을 쏟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그들이었기에 더 열심히 섬겼다. 조금씩 학생들도 많아졌고 학교 규모도 커졌다. 그런데 뜻하지 못한 난관이 생겼다. 지인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다시 학교운영을 맡겠다고 한 것이다. 그들 부부가 학교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에게 남은 거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4년의 섬김과 헌신이 허무함으로 돌아왔다. 딱 한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었다. 기도였다.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간절하게 구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북한 아이들에게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면 먼저 그들의 마음을 들어라”

그 순간 먹구름이 가득하던 하늘에 햇빛이 비추는 것 같았다. 그들은 북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에 입학했다. 북한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환경은 물론 그들의 문화까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가 2011년이다. 그렇게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개척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을 다시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코리아다음학교입니다.”

마침 통일부 주무관이 북한 영재학교를



전존, 전사라 부부.

다녔던 탈북청소년 한 명을 소개시켜주었다. 그 학생이 무척 잘 따라와 주었고 이후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그 일이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그들 부부에게는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신앙이었다.

“우리 학교의 표어가 ‘공부와 기도’예요. 평일 오전 9시에는 <생명의 삶>으로 QT하고, 목요일에는 저녁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을 신앙으로 회복시켰더니 공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들 부부는 아이들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다고 했다. 그 신앙의 힘이 다음학교의 초석이자, 정체성이다.

온누리교회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

“온누리교회에 너무 많은 사랑의 빛을 쬔습니다. 다음학교에도 많은 목사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설교를 해주셨고, 저희를 위해 기도도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서빙고공동체 식구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온누리교회를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라고 했다. 그만큼 온누리교회와 서빙

고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그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내년 1월 다음학교 느헤미야 합창단이 3주 동안 미국에 갑니다. 미주지역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11개 교회를 방문해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교포들에게 통일과 북한 땅을 위한 기도도 요청할 것입니다. 이때 동행할 한국 청소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문의: 김혜령 010-3410-8257

느헤미야코리아다음학교

느헤미야코리아다음학교는 탈북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통일부 소속 대안학교다. 미국인 학교로 인정되어 졸업하면 미국 졸업장을 수여받는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한국, 북한, 한인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 되는 것이 비전이다. 한국학생도 느헤미야코리아다음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입학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이예슬 010-4797-5120
nehemiahkorea@gmail.com

서빙고공동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느헤미야코리아다음학교를 다니고 있는 21살 김지영입니다. 저는 2014년 3월 화창한 봄날 친언니와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당시 저의 마음은 날씨만큼 화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오는 과정이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말수가 적어졌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서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원에서 느헤미야코리아다음학교를 소개해줬던 것이 떠올라 지난해 6월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근 석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서야 본격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받은 사랑 꼭 갚겠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밝은 성격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교사야말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서로를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코리아다음학교에 온 후로 성격도, 마음도, 건강도, 신앙도 회복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서빙고공동체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3~4주에 한 번씩 오셔서 간식과 반찬을 푸짐하게 가져다주셔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항상 엄마처럼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서 받은 사랑 꼭 갚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지영 학생

특집_ 길 따라 흔적 따라

1. 기독교와 한글보급
2. 기독교와 시민운동
3. 기독교와 사회복지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

한국 초기 기독교처럼 세상에 하나님 나라 구현해야

우리나라가 위기다. 여러 사건들로 민심이 들끓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이럴 때 누군가 앞장서서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하는데 그 역할을 해줄 어른이 없다. 이 시대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해야만 한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계몽운동 사례와 그 계몽운동을 이끈 선각자들을 만나보면서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자.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진지 130여 년이 지났다. 반만 년 유구한 한민족 역사에서 26% 밖에 차지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독교는 한국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일제의 조선 침략이 시작된 19세기 후반은 우리나라가 근대화의 진통을 겪던 시기였다. 이때 들어온 기독교는 사회개혁운동과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계급 타파, 여성 해방 및 여권 신장, 한글의 재발견과 보급, 근대교육 도입, 봉건적 구습 타파, 민족운동을 주도했다. 대표적인 사회변혁 운동이 바로 여권 신장과 여성의 사회참여이다. 남존여비, 남녀유별 등 유교적 문화와 관습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여성의 지위는 보잘 것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성경보급을 통해 한글교육 운동을 펼치면서 여성들이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각 교단은 여전도회를 조직했고, 여성들은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구국기도회를 열어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일제의 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을 할 때는 자신들의 머리 카락을 자르고 반지와 패물을 팔아 현금을 모금하는 등 애국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구습과 악습 타파에 앞장선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는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는데도 앞장섰다. 조선사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미신을 타파하고, 축첩 금지, 음주·흡연·아편금지, 혼인법과 장례법을 개선하는 운동을 펼쳤다. 남비와 허례허식을 없애고,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 도덕적인 면을 강조했다. 1895년 감리교에서는 첩이 있는 자는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줄 수 없다고 결의했고, 1908년에는 장로교에서 첩이 있는 사람의 원입을 금지토록 했다. 실제로 새문안교회는 축첩한 교인을 처벌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한국의 기독교는 당시 사회에 고질적인 문제였던 술, 담배, 아편도 심각하게 인식했다. 선교사들은 흡연·술·도박의 폐해를 인식하고 선교적인 차원과 사회정화 차원에서 금연·금주·도박금지운동을 실시했다. 북감리교 선교사들은 1897년 공식적으로 금주 결의를 했고, 조선그리스도인회보는 “술이 사람의 혈기를 일으켜 무례하거나 분별이 없어지게 하니 아주 끊으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운동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절제와 금욕을 신앙의 실천으로 받아들이게 해 도덕적 향상을 가져오게 했다. 이는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었다.

기독교는 신분 타파에도 앞장섰다. 만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인권사상의 고취는 물론, 봉건사회의 잔재인 신분제도 타파의 기폭제가 되었다. 당시 독립신문은 ‘반상과 남녀의 차별’이란 글에서 양반 계층의 횡포를 지적했고, 매일신문은 “누구나 상하의 귀천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강조하면서 “영국이나 미국같이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되면 모든 백성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런 인권옹호 운동은 교인들의 노비해방 사례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남양교회 박정렬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의 계집종을 속량해 수양딸로 삼고 가족처럼 지냈고, 황해도 금천의 범내감리교회 속장이연철은 다섯 명의 노비 문서를 불사르고 그 가족까지 속량하면서 “나가서 자유로이 살면서 주를 진실히 믿으라”고 권면했다. 교회는 당시 사회의 가장 비천한 계급이었던 백정을 먼저 받아들였다. 무어 선교사는 고통당하는 백정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탄원했고, 이 진정서가 받아들여져 백정이 평민신분이 되게 만들었다. 양반과 백정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도 계급차별 철폐를 위한 교회의 실천노력이었다. 이렇듯 교회와 기독교가 주체가 된 사회운동을 통해 근대 시민의식이 성장하게 되었고, 기독교의 반봉건 사회개혁운동은 반외세 자주국가운동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립운동이다. 독립협회(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회시민단체), 만민공동회(민중대회단체), 신민회(1907년 안창호가 조직한 항일비밀결사단체) 등을 결성해 애국계몽, 근대화, 항일민족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이승만, 김구, 안창호, 조만식, 이준, 이승훈, 서재필 등은 기독교를 방편으로 삼아 독립운동과 사회개혁운동을 시도했다. 1919년에 일어난 3.1독립만세 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도 바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었다. 3.1운동을 일으킨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만세운동으로 1년 동안 수감된 9천여 명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22.4%나 되었다. 독립운동에 있어서 기독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대한민국 건국, 민주주의 수호에도 공헌

한국 기독교는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에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 있는 국채보상운동을 재현한 모형.

크게 공헌했다. 1948년 5월 31일 열린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은 “의회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 게 기도를 부탁했다. 식순에 없던 것이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초대 내각의 21개 부처장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9명이었고, 그들 중 2명이 목사였다. 당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5%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비중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독교는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에도 앞장섰다. 해방 후 남한에는 당시 미군정이 “조선에서 공산주의는 그 출발점이 세계 어느 곳보다 좋은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을 정도로 좌익 세력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반공주의를 고수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앞장섰다. 한경직 목사는 “자유 민주 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이다... 공산당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인간에게서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국가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요 사회 체제”라고 설교할 정도로 공산주의 체제를 규탄했다.

기독교는 한국 사회 현대화 과정에서 정치적 민주화에도 기여했다. 1960년대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일어난 반정부 민주주의 운동인 4.19혁명은 분단 이후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구태의연한 한국 기독교에 자기비판의 동기를 부여했다. 4.19에 자극받은 한국 기독교는 노동현장, 농민현장, 빈민현장으로 선교의 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기독교 학생들이 사회참여를 외치기 시작한 것도 이 때였다. 기성교회들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사회 상황을 무시하고 개인구원만을 강조하자 이에 만족하지 못한 기독교 학생들이 사회참여를 외

치기 시작했고, 1969년 69개 대학 대표들이 모여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을 출범시켰다.

1970년대는 한국 교회가 정치적 민주화에 출현한 시기이다. 3선 개헌과 유신체제 하에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참여했다. 1975년 한국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조직되었고, 8개 교단 320명의 성직자가 ‘기독교 정의구현 성직자단’을 결성했다. 기독교인들은 수차례의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정치적인 시위에 앞장서는 등 정치적 민주화의 선봉장이 되었다.

1980년대는 기독교 시민운동의 분수령이 되는 시기였다. KNCC 인권위원회, KSCF, YMCA(기독교청년회), YWCA(기독교여자청년회), 기독교수협의회를 비롯한 근로자층 인권운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던 도시산업선교회 등이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전후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사회운동협의회 등의 후신인 기독교사회선교연대 등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시민운동단체가 생겨났다. 독재정권에 반대하고, 인권운동에 힘쓰는 등 민주화를 이루는데 동참했다. 경실련은 1989년 7월 서경석 목사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만든 시민운동단체다. 경실련 이후 환경, 여성, 소비자 등 여러 분야에서 경실련과 비슷한 성격의 시민운동단체가 나타나는 등 한국의 대표적 시민운동단체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시민운동을 통해 사회변혁을 이끌어냈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동시에 이 세상의 시민이다. 기독교 시민운동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한다. 초기 기독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온누리호스피스에 보낸 편지

폐암 4기 딸이 그토록 미워했던 엄마를 간호하며 “고난도 축복이다”

“고난도 축복이다.”

머리로로는 이해가 되지만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는 쉽게 이해되거나 수용되는 말이 아니다. 그만큼 신앙적 성숙이 요구되는 말인 것 같다. 그런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도 축복이라고 간증하는 성도가 있다. 그 성도로부터 한통의 편지가 왔다. 온누리호스피스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폐암 4기 딸이 그토록 미워했던 엄마를 극진히 간호하고,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쓴 눈물 나는 고백이다.

/ 편집자주

내 이름은 박성진이고 오빠의 이름은 김종상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엄마는 결혼을 두 번하셨다. 지금은 이 사실을 공개 석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큰 상처를 입었다. 학교에서 가정환경을 조사할 때 가족의 이름을 적어야 했다. 친구들이 “너는 왜 오빠랑 성이 달라?”하고 물을 때면 가슴이 아팠다. 양쪽 집안의 모임을 가도 나는 찬람신세였고, 열등감이 많고,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공부에 승부를 걸었다. 공부는 어느 정도 했지만 문제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엄마를 향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부 잘하고 말쑥 피우지 않는 착한 딸이었으나 마음속으로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빨리 결혼해서 집에서 탈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7년 만에 이혼했고 엄마와의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어떨 때는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운 적도 있다. 그때마다 어릴 때의 한을 쏟아내듯 엄마를 공격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사이좋고 애뜻한 모녀 시간을 보면 부러웠다. 마음 깊은 곳에 미움을 담은 채 40대가 되었다.

2012년 4월, 나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고 있었다. 하고 있던 사업의 매출이 가장 높았을 때였다. 그런데 잔기침을 몇 번해서 감기인가 보다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가 폐암 4기라는 것이었다. “왜 하필 나지?”, “내가 뭘 그리 잘못 했나”하며 부정했고 반항했다. 누군가를 원망했다.

그런데 우연히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그 책을 읽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었다. “왜 하필 나지?”라고 했던 질문이 “왜 나면 안 된다고 생각 하고 있지?”라고 바뀌었고, 지난 47년 동안 많은 것을 누려왔던 삶을 떠올리며 감사드렸다.



김정숙 목사가 박성진 성도 어머니에게 병상세례를 주고 있다.

암이 가져다 준 선물 ... “엄마 사랑해”

나는 편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탓에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었다. 그런 내가 아프고 나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했다. 잘나가는 사람보다는 나와 같이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었던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었다. 사실 그전까지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공감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암이 준 또 다른 선물은 엄마에 대한 용서였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내 병에 대해 전부 알지 못하셨다. 엄마는 아픈 딸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셨다. 당신이 죄가 커서 내가 병에 걸린 거라며 자책하시곤 했다. 문득 엄마를 보니 어느새 86세의 고령이었다. 47년 동안이나 엄마를 미워했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2015년 9월 건강하게 지내시던 엄마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엄마를 동네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 받고 수액을 맞게 해드렸다. 그 뒤로 엄마는 아프면 나도 모르게 병원에 가서서 수액을 맞으셨다. 문제는 그로인해 전해질 부족 현상이 생겼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트륨 부족 현상으로 쓰러지셨다. 나는 김정숙 목사님이 계신 삼성병원으로 엄마를 모셨다. 그간 엄마는 불교신자였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 내가 일부러 식사기도를 큰소리로 하면 “아멘”을 따라 하

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렇다고 먼저 말씀하시곤 했다.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김정숙 목사님께서 영접기도를 해주셨고 엄마도 거부감 없이 따라주셨다.

퇴원 후 심망 증세(심한 과다행동)와 밤낮이 바뀌어 밤새 1시간 간격으로 아들딸을 불러드렸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 나와 오빠는 엄마를 간호하느라 온 정성을 쏟아야 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엄마를 만지는 것조차 어색했었다. 그런데 거리낌 없이 엄마 기저귀 갈아드리고 대소변도 닦아드렸다. 평소 애지중지 않던 “엄마 사랑해!”라는 소리를 많이 해드렸다.

그러다 올해 4월 엄마가 나트륨 부족으로 또 다시 쓰러지셨다. 일반내시경 과정 중 식도를 다치면서 음식을 넘기지 못하게 되셨다. 결국 영양제에 의존하면서 체력이 점점 떨어져 갔고 급기야 흡인성 폐렴에 걸리셨다. 5월 26일, 엄마가 중환자실로 이동하시는 날이 기억난다. 며칠 전 나는 호스피스에서 배운 대로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치료는 안하고 엄마를 편히 모시기로 서명하고 왔었다. 그런데 의사가 전화를 걸어 기관 삽입을 안 하면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민이 되었다. 오빠도 아직은 엄마를 보내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에 치료를 선택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것이 기관 삽입을 받으니 엄마가 말을 못하게 되셨다. 나는 참 많이 울었다. 나의 뜻으로 엄마를 힘들게 했다는 자책감이 들었

다.

엄마는 비록 말은 못하셨지만 목사님의 인도로 병상세례를 받으셨다. 내가 엄마한테 해준 일 중 가장 잘한 일이기도 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VRE’라는 균에 감염이 되었다. 전염성이 강해 1인실로 옮기셨고 의사들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나가달라 했다. VRE라는 균에 감염되면 받아주는 요양병원이 한정되어 있다. 내가 그동안 알아보고 대가신청을 했던 좋은 요양병원도 소용없었다. 결국 작은 요양병원의 중환자실로 갈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장대비가 왔었는데 내 마음에 내리는 것 같았다. 거기 계시는 약 2달 동안 육체적으로는 아주 나빠지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했다. 친팔보다도 더 극진했던 정승현 권사님의 기도와 보살핌, 그리고 아들딸의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

8월, 의사에게 엄마가 언제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을 통보받았다. 바로 목사님과 정 권사님을 모시고 임종예배를 미리 드렸다. 찬송할 때 건너편에 계신 말도 잘 못하는 중환자 한 분도 찬송을 같이하셨다. 그리고 며칠 후 새벽 엄마는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3일 동안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호스피스 사역자님들의 사랑으로 장례를 잘 마쳤다.

암을 통하여 고난이 축복이었음을

나는 지난 4년 반 동안 24번의 항암치료, 35번의 방사선 치료, 1번의 뇌수술, 1년 반에 걸친 표적항암치료를 받았다. 발병 당시 10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물론 지금도 임상시험 중인 약을 먹으면서 치료 중에 있지만 다 나을 것을 믿는다. 혹시 그리 안 될지라도 암을 통하여 고난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지내고 있다. 내가 많이 아프지 않아 먼저 엄마를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 더욱 감사드린다. 기관 삽입으로 엄마를 힘들게 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우리 세 식구가 진정으로 회복되었다.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셨다.

나는 온누리호스피스학교에서 어설픈게나마 봉사를 하고 있다. 나도 엄마도 온누리호스피스 사역자님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멀지 않은 시일 안에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엄마의 간병을 통해 배운 호스피스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나누기를 소망한다.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박성진 사역자(온누리호스피스)

온누리호스피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연락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
(단 서울, 경기 지역 이내 가능).

팀장: 장은숙 권사(010-3715-1652)
총무: 강경옥 집사(010-3412-7966)

종교개혁 D-365 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Sola Scriptura) (Sola Gratia) (Sola Fide)

교권주의, 신앙의 형식화, 본질 잃어버리는 것 경계해야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 16세기 초반, 로마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하는 비용을 마련하려고 독일인들에게까지 면죄부를 팔았다. 비텐베르크대학 교수였던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 유럽사회에 엄청난 변혁을 일으켰다. 가톨릭교회로부터 개신교회의 분리라는 종교적 개혁과 신성로마제국의 붕괴를 가져와 중세시대를 마감하고 근세유럽 탄생의 기폭제가 됐다. 이기훈 목사가 499년 전 중세유럽을 변화시킨 루터의 개혁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의 성 안교회 출입문에 게시한 이후 온 세계 개신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다.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로 많은 학술회의와 다양한 기념행사가 독일을 비롯해 온 세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회가 종교개혁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창하고 떠들썩한 기념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차라리 500주년을 기점으로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1년 후 맞이하게 될 종교개혁 500주년을 바라보면서 개혁정신을 거울 삼아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교회가 항상 직면하는 세 가지 시험

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험에 항상 직면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면서 달려왔다.

첫번째 시험은 교권주의였다. 교권주의란 성직자들의 직위가 권력이 되는 것이다. 그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성직자 개인의 영광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된다. 그 결과 성직이 부당한 정치 세력이 되기도 하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유린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세는 한마디로 교권주의 시대였다. 당시 교황이나 주교들은 권력의 칼을 쥐고 마음껏 휘둘렀다.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했다.

오늘날 교회도 교권주의 시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한국 교회 부흥 1세대들 중에 교권주의 성향을 띤 목회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가 지나치게 제도화되어 그 제도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역들이 제한받게 된다면 이 또한 교권주의의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장로나 권사라는 교회의 직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고 계급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면 이 또한 교권주의의 증세다.

두번째 시험은 신앙의 형식화이다. 개혁주의 신앙이란 본래 형식보다는 내적체험을 중시한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거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오른쪽)과 반박문을 붙이는 모습.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역사나 전통 또는 관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중세 가톨릭교회는 예배의 본질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성경보다 더 중시되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가 필요했다. 교회의 멤버가 되어 미사에 참여하면 얻을 수 있다고 가

서,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성령님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일에 충실했다. 말씀이 살아있었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났으며, 치유와 회복은 물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예루살렘교회는 본질에 충실하였다.

세번째 시험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대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대중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셨고, 소수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으며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육체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영혼이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셨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사회로부터 외면당해 세상 문제 떠안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신앙인들은 믿음과 거룩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며,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성령님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일에 충실했다. 말씀이 살아있었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났으며, 치유와 회복은 물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예루살렘교회는 본질에 충실하였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형식화된 신앙이 없는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 제사는 열심히 참석했지만 형식에 불과했다. 그들은 마음과 삶이 드러지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밖에

서,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성령님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일에 충실했다. 말씀이 살아있었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났으며, 치유와 회복은 물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예루살렘교회는 본질에 충실하였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한다

루터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는 본질과 거리가 멀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였다. 한마디로 교회만을 위한 교회였다. 교회는 스스로 높은 담과 벽을 쌓아 세상과 구별하였다. 교회는 거룩한 땅으로 교회 밖 세상은 타락한 땅으로 여겼

다. 구원을 얻으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가르쳤다. 게다가 로마 베드로 성당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며 구원을 돈 주고 사도록 만들었다.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놓고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면죄부를 통해서 그들의 돈까지 갈취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어느 과부가 광부로 일하다가 죽은 남편의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빚을 얻어 면죄부를 구매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노했던 루터의 유명한 일화는, 그 시대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급기야 루터는 가톨릭 신부의 한 사람으로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그냥 묵과할 수 없었다. 그는 교회 본질 회복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는 유대교의 바울과 같은 인물이었다.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도록 시험하는 것이 세속화이다. 세속화란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추구함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세속화 결과 교회는 거룩을 상실하게 되었다. 신앙인들은 세상 속에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할 때 사회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도리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마다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였다.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떠안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우리만의 성을 쌓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신앙인들은 세속주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지 않고 믿음과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쳐야만 한다.

한국 교회 안과 밖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신앙인들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그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한다. 교회는 날마다 복음에 비추어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에 근거하여 매일이 개혁의 날이 되어야 한다.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11월 13일 ‘일대일데이’ 행사 개최

키그림 그리기, 이벤트 시상식, 동반자 모집 등

일대일데이 행사가 11월 13일 캠퍼스별로 실시된다. 전 캠퍼스 공통적으로 열리는 행사는 일대일 제자 양육 교제 표지에 있는 키그림 그리기다. 참가하는 성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증정된다. 이외에 다른 행사는 캠퍼스별로 진행된다.

서빙고는 1부 예배 후에 이천만 광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일대일의 정의 이벤트 시상식, 일대일 제자양육 3~4대 사진촬영, 연령별 성경암송대회, 일대일 변천사 사진, 책자, 교재 번역본 등 전시, 일대일 제자양육 관련 상담 등을 진행한다. 양재는 오전 9시부터 드림홀에서 일대일 제자양육, 대외사역, 양육자반 봉사자들을 초청해서 기념예배를 드리고 축하 행사를 연다. 부천은 본당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사진 전시, 포토존 설치, 우수양육자 시상상을 한다. 대전은 5층 일대일데스크 앞에서 포토존을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있는 성도들.

운영하고, 일대일 동반자 및 대학 청년부 양육자를 모집한다. 남양주는 오전 8시 30분부터 1층 복도에서, 평택은 1부와 2부 예배 후에 2층 로비에서 일대일데이 행사를 한다. 강동은 일대일데이 노방전도를 한다. 양

지는 오후 12시 30분부터 1층 로비에서 일대일데이 행사를 하고, 수원 은 11월 20일에 일대일데이 행사를 실시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포에버성가대 제5회 정기연주회 개최

온누리교회 포에버성가대가 11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서빙고 경찬홀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포에버성가대는 12곡의 찬양을 선보일 예정이다. 트럼펫연주, 필그림 아카데미 기타 앙상블, 라보체(La Voce) 남성4중창의 공연도 이어진다.

포에버성가대는 65세 이상 어르신 60명으로 구성된 온누리교회 최고령찬양합창단이다.

‘일.하.세 아카데미’ 11월 26일 개강

일터에서 하나님을 세우고자하는 성도들이 꼭 들어야할 강의가 열린다. 바로 일.하.세 아카데미다.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오후 3시 양재 온누리교회 운유홀에서 진행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문의: 010-8668-4314

2016년 6차 선교사파송

바이블네임	보안국명
몽호새홍	동아시아 A국
젠드마	동아시아 A국
큰야빠	남아시아 1국
큰엄마	남아시아 1국
여호수아	중동 E국
에스겔	중동 E국
에스라	국내 M센터
에델	국내 M센터
갈렙 신	가나
조슈아 홍	가나
그레이스 조	아프리카 G국

일본인, 일대일 제자양육 강사반수로

일본 고베에서 온 목회자와 성도 6명이 일대일 제자양육 강사로 거듭났다. 지난 2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301호에서 특별한 수료식이 있었다. 일본 고베그리스도영광교회에서 온 목사와 성도 6명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진 일대일 제자양육 강사반을 수료한 것.

일본 고베에서 온 목회자와 성도들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처음 접한 것은 지난 2007년이다. 러브소나타 집회에 참가하면서 온누리교회 일대일 제자양육을 접하고 교회와 바

로 접촉했다. 특히 고베그리스도영광교회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다. 일대일 양육을 시작한 이후 교회를 3개나 세웠을 정도로 부흥했다.

시게모토 가츠유키 목사는 “온누리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일본 교회에 흘려보내는 일대일 양육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신민호 장로(일본어예배부)는 “앞으로 일본의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모델을 소개해서 도전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10월 세레자

■서빙고	오서현 150911	김진원 761119	■대학청년부
권순호 580819	오정민 김주리	이재준 660114	길
박종환 750101	이유라 160115	이환호 011008	김병규 861030
배현선 821213	이동호 박보연	이현주 850701	
이정희 760205	이하음 141026	정규창 811106	허브
입교	이창훈 송경아	조혜영 720825	정연수 970108
임채림 821103	이 흘 141014	현옥희 660918	이종혁 970926
유아	이성국 김미화	유아	김영현 941002
권진우 150131	임수현 150819	권하울 150218	입교
권동진 김유수	임정우 성나연	권성욱 최소연	이하은 970911
김재원 141104	정윤지 150908	김누아 150114	한예주 940208
김기훈 정미희	정재오 이주연	김윤수 박소영	
김주호 150527	조수아 150514	김시안 150919	SNS
김무환 김윤아	조정훈 최신애	김 원 위혜원	소예영 740912
김태은 150225	조하진 151112	김예성 150122	박윤정 810916
김윤식 이민아	조하늘 정진이	김응태 차지원	조혜정 810908
박소울 150729	최은서 150609	김예지 141103	입교
박주한 남가람	최준환 김현주	김성욱 임진희	이승혜 881020
박주한 141017		최준성 150317	유아
박대원 임채림	■양재	최지호 서지선	안시안 151122
심규민 150308	권용범 610120		안제현 김아리
심선보 최연정	김한순 640421		

박관구 선교사 천국환송예배

인도네시아 선교에 헌신했던 박관구 선교사가 지난 10월 25일 소천했다. 향년 61세. 지난 10월 28일,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박관구 선교사 천국환송예배를 드렸다. 예배에는 유가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성도 등이 참석해 박관구 선교사의 천국 가는 길을 배웅했다. 박종길 목사는 ‘길, 진리, 생명’(요 14:1~6)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유가족과 추모객들을 위로했다.

박관구 선교사는 1998년 12월 총회세계선교부 파송(후원 온누리교회)으로 인도네시아 선교를 시작했



다. 자카르타 안디옥국제교회를 개척했고, 한인목회와 현지인 선교사역에도 헌신했다. 유가족으로 부인 안은숙 사모, 자녀 박병권, 박한나가 있다.

/ 정현주 기자

차세대 교사 224명 지원

신입교사대학, 12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에서 10월 16일부터 실시한 ‘2017 차세대 교사 모집행사’에 총 224명이 지원했다. 서빙고 119명, 양재 91명, 도곡교육관 14명이다. 차세대 교사로 지원한 성도들은 신입교사대학에서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역량 등을 훈련 받는다. 교사대학은 12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서

빙고 온누리교회는 신동아쇼핑센터 2층 믿음홀, 양재와 도곡교육관은 운유홀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를 비롯한 차세대 교역자들이 한다.

한편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을 제외한 캠퍼스에서는 11월에 교사모집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소정 기자

독일 사람이 본 ‘북한상황과 남북통일 전망’

통일워크숍, 11월 3일 오전 10시 서빙고 비전홀

독일 사람이 본 ‘북한상황과 남북통일 전망’을 주제로 통일워크숍이 개최된다. 11월 3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에 켈리거 박사(한스자이텔 재단 한국사무소장)를 초청했다. 켈리거 박사는 2006년부터 북한에서 교육,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전문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가 경험한 생생한 북한사회의 변화와 통일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양재 사랑부 이주민전도집회 개최

양재 사랑부가 오늘(30일) 오후 2시 안산 만남의 광장에서 K-festival 이주민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장에 인부서가 외국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번 전도집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국악연주, 워십댄스, 한국무용, 댄스연주, 사랑부 합창 공연 등이 이어지고, 2부에서는 축복송, 안산M센터 소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전도집회에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오사카 기 · 도 · 제 · 목

- 10월31일(월)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회개와 영적 열매가 맺히기를
- 11월1일(화) 협력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실행위원들이 하나 되도록
- 11월2일(수) 전도대상자들이 많이 참석해서 모두가 구원받도록
- 11월3일(목) 행사를 기록하게 해주시고,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 11월4일(금) 이재훈 목사, 강사, 출연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 11월5일(토) 스태프들이 모든 과정마다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도록
- 11월6일(주일) 모든 참가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도록

■ 소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 간증



/ 김주경 집사(일산공동체)

전 세계를 바라보고,
품고, 기도해야

2012년 아들이 FA선교사로 6개월 동안 중동A국에 갔다. 그때 아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온누리신문에서 소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이 있다는 것을 보고 찾아갔다. 그 기도모임에 처음 나갔을 때 정말 놀랐다. 청년들이 10여 년 넘게 소아시아를 위해 기도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나간 그 기도모임에서 조금씩 중동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됐다. 자연히 이슬람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고, 이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도 알게 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에 있는 소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중동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됐다.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여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중보기도자는 겸손과 사명을 동시에 가져야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명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명을 가지되 늘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나라에 무너뜨려야 할 악할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내 안에도 악한 영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아시아에서는 민족 간에 피 흘리며 싸우는 일이 많다. 분열이 많고, 화합이 잘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분열이 없었는지 돌아보는 것이다. 나부터 온전해야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때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각 나라마다 파송된 선교사들과 중보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보면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와 선교사님을 함께 미워하는 경우가 있다. 옳지 않다. 결국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적은 적대 국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만큼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 세계를 바라보고, 품고, 기도해야 한다. 이슬람은 더욱 그렇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예비한 자들이기를 소망한다.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료 간증



/ 정유철 성도(부천 온누리교회)

“나지막한 동산이 되어줄게요”

아내가 처음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망설였다. 내 신앙이 그리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부터 회사일이 힘들어지고, 의지가 되던 동료들이 하나 둘 떠나갔다. 의지하거나 위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자 많이 힘들었다. 그때마다 출퇴근하며 듣던 찬양이 큰 위로가 되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는 찬양을 한 구절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날 이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감사기도로 시작하게 됐다.

그즈음 주일에 하가훈 참가자 모집광고를 보았다. 문득 아내가 추천했던 기억이 났다. 참가신청을 할까말까를 망설이던 ‘소원’이라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망설이고 있느냐”며 찬양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아내에게 하가훈에 가자고 제안했다. 하가훈에서 다른 가정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서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4주 동안의 교육 기간 동안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들을 나누

었다.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 주었다.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많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었다.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아내의 외로움과 힘들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일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자만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했다. 이제는 아내의 작은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한다. 또 아이들에게도 더 다정한 아빠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훈련 마지막 날 아내에게 이렇게 프러포즈를 했다.

“결혼 전 큰 산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해 미안해요. 이제는 오르기 어려운 큰 산이 아니라 당신과 아이들이 편하게 올라서릴 수 있는 나지막한 동산이 되어줄게요.”

이 약속을 꼭 지켜서 가정의 진정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노력할 것이다. 하가훈 스태프로 섬겨 주신 사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른 가정과 소중한 인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천 의료선교 간증



/ 김난이 성도(부천 온누리교회)

공활한 마음이 마르지 않기를

의료인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참여한 의료선교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도전을 받기도 하고, 기쁨이 가득하기도 하다. 정말 감사한 사역이다. 사역을 하며 의료선교 일지를 본적이 있다. 2004년 10월 19일부터 쓰기 시작한 일지였다. 의료취약 지역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항상 영적인 기초를 다지기 위한 의료선교 기도모임이 시작이었다. 그 일지의 내용을 보고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아름다운 편지이듯 의료선교 일지에 가득 쓰여 있는 내용들은 선교지의 영혼들을 향한 부천 의료선교팀의 사랑의 편지였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보여주는 기록들이었다.

선교지를 방문하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난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 보게 하신다. 밭에 감춘 보배처럼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신

다. 그분들을 통해서 기쁨과 감동을 느낀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선교지 구석구석에는 나이 드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많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신다. 그분들이 머금은 미소에서 천국을 엿볼 때가 있다. 같은 사역지에 여러 번 방문해도 마음을 닫고 계신 분들이 어느 날 회심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도 많다. 불의의 사고로 목사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젊은 아들이 전도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본 적이 있다.

올해 10월에는 강원도 정동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하나님이 주신 상 같았다. 부끄럽지만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천 의료선교팀의 선교 여정에 매번 동행해 주시는 인천 온누리교회 미용팀에게도 감사패를 전하고 싶다.

나는 의료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내안에 주님이 부여하신 공활한 마음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한다.

■ 63기 성령수련회 참가자 간증



/ 임석건 성도(여호수아공동체)

내 삶을 성령님께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성령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싶다. 내가 63기 성령수련회에 참가한 것도 오로지 성령님의 은혜임이 틀림없다. 63기 성령수련회 참가자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았을 때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평소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 성령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성령님은 손에 잡힐 듯 말 듯 한 분이였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며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간간히 경험해 왔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말씀으로 듣고,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체험적으로 만나는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이번 성령수련회를 통해 그동안 어렵게 알고 있던 성령님을 세세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성령수련회는 기대 이상이였다. 강의를 통해 막연하던 성령님에 대한 개념들을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 성령님이 내 머리와 가슴속에 자리 잡았다. 특히 말씀에 기초하여 성령님에 대해 배운 것이 유익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서 너무 좋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값진 시간도 있었다. 나는 정말 성령님과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다시 한 번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파스한 성령님의 만지심과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임하고, 기쁨을 부어주노라.”

나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던 성령님의 파스한 손길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성경지식을 채우고 열심히 기도해도 내 능력과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 삶을 사모하는 성령님께 내어드린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장로칼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임훈 장로
(2000선교)

오순절 이후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외에도 여전히 율법과 유대적 관행들을 열심히 지켜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방교회였던 안디옥교회까지 와서 “할례를 받

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강변하다가 바울과 바나바와 충돌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장시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일어나 성경과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고백이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의 서곡과 같은 선언이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인식체계의 대전환)를 통해 복음이 이방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 문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될 것을 직감한 사람들이 그곳에 몇이나 있었을까?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려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필름을 거꾸로 돌려보면 매우 촘촘하게 준비된 사건이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의 선한 행실을 칭찬하고, 베드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그를 초청하도록 했다. 기도하던 베드로에게도 보자기 환상을 삼세번 보여주시며 그들의 초청에 응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고넬료와 이방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성

령이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에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다고 번역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을 것을 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일로 베드로는 기존 신자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만 이 일의 자초지종을 다시 설명하며 곰곰이 되씹어 보게 되었다. 이런 선행학습을 통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 모든 일이 가능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셧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이를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다.

과거 200년은 놀라운 선교의 시대였다. 율리엄 케리의 해안선 선교시대와 내륙 깊숙이 복음을 들고 나간 허드슨 테일러의 내륙선교시대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후 지리적으로 접근하던 선교 패턴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다. 언어와 종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하여 선교의 큰 문이 열리는데 이를 ‘미전도종족 시대’라 부른다. 최근 선교 상황이 또다시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예고하는 듯하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도시화와 이주민,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 현상을 분명하게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시대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라고 한다.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을 향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사도행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열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열정과 인도를 따라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준비할 때이다. 작은 자, 나그네, 우리 곁에 다가온 이웃들에 다가가라.

권사칼럼

“오늘을 귀한 선물로 받아라”

이지연 권사
(강남B공동체)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으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을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시 28:6-9).

기도드리다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났다. 푸르른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가을의 아름다운 색깔은 수채화로 물감을 풀어 놓은 것 같다. 겨울은 온통 하얀 눈발과 같은 설경을, 봄에는 수줍은 벚꽃이 만발한다. 여름은 온통 푸르다. 푸르른 공간 안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4년 전 우연한 기회에 초청을 받아 ‘프레스디아스’에서 기도한 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쾃전으로 흘러 들고,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30년 한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교만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 생각을 하고 1년 뒤 교통사고를 당했다. 12년 동안 봉사하던 곳으로 가는 길이었다. 너무 익숙한 길이었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졌다. 뒤에 달려오던 트럭이 내 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차 3/4이상이 형체도 없이 구겨졌다. 더 놀라운 것은 운전석만 보호막을 덮어 놓은 것처럼 멀쩡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다. 주님께서 나의 자리를 지켜

주신 것이다. 그 일로 은사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회개와 함께 내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내가 봉사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간이다. 이곳은 쉼터와 같다.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쉬고, 위로 받고, 치유되는 공간이다. 각 사람의 체질을 알면 전화로도 치유가 가능한 자연치유요법이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이모션테라피(칼라테라피)가 된다.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를 살리셔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직장으로 가는 매봉터널을 지나면서 시편 23편, 역대상 29장 11절~13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읊조려 본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활짝 연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하다.

“오늘을 귀한 선물로 받아라.”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주기도문을 외워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 6:9~13).

신앙에세이

이강현 전도사
(양지 온누리교회)

인간관계기술 분야의 명저 <카네기 인간관계론> 앞부분에 사람을 다루는 대원칙이 나온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비평이나 비난, 불평하지 말라이다. 저자 ‘데일 카네기’는 “흉악한 살인범도, 잔인한 갱단의 두목

도, 교도소 수감자도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량한 일반 시민과 다를 바 없다고 합리화 한다”고 했다. 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비평이 무익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 원칙대로 사람을 대한다면 실천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 좋은 점을 부각해 보고, 모난 부분을 눈감아주는 사람을 마다할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원칙의 맹점은 문제가 여전히 상대방에게 있다고 여기는 관점이다.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에도 비평하지 않고 참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에 분노가 쌓이게 된다. 내면이 병들게 된다. 마치 벌레가 열매 안에서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상태와 같다. 이 원칙을 더 건강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려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감싸 주기보다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게로 문제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비평하지 않는 동기가 상대방의 문제를 인내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무지 때문이라는 입장이 더 바람직하다.

예수님도 산상에서 비평에 관한 교훈을 주셨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마 7:1)고 말씀하셨다.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남에게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남을 용서하면 남에게 용서를 받을 것인데 만일 남을 헤아려 비판한다면 도로 그 헤아림으로 비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마 7:2 눅 6: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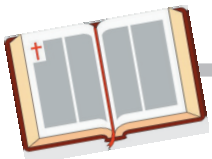
‘들보 제거 행동’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할 때 실천동기를 마태복음 7장 6절이 아니라 7장 3-5절에서 찾아야 한다. 먼저 6절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마 7:6)고 한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방을 개와 돼지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평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막대기)가 있기에 상대방 문제의 이유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마 7:3-5). 즉 우리는 상대방 ‘티’(문제)의 이유를 밝히 보기 위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드러나는 행동 자체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하고, 입방아에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잘 관찰해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가정 형편, 사회적 지위, 고질적인 심리적 한계, 동료집단의 압박 등이 그

러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문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내 탓으로 여겨야 한다. 상대방 문제를 듣고 이해하려는 ‘들보 제거 행동’을 실천의 동기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비평하지 말라’는 고귀한 교훈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속이 썩어 있는 열매가 아닌 순전한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이다. 들으면 알게 되고, 알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서늘한 가을날, 나와 싸늘한 관계에 놓인 그 사람에게 대화를 청해보는 건 어떨까?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화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오해가 쌓였을 수도 있다.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점점 차가워지는 이 시대에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사랑의 대화가 절실하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

동시에 다른 영혼을 진심으로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느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21절).

다른 사람들은 그랬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 일, 행동,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종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22절).

누군가를 종처럼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종처럼 섬겼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공경하고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는 연단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뭇결은 폭풍을 많이 맞을수록 아름답고 정교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였지만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디모데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 있는 사람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현신적인 사람 ‘에바브로디도’

두 번째로 추천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름 자체에서 이방인임이 드러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에피’라는 전치

사와 ‘아프로디테’라는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비너스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이방신의 이름을 따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자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도우려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했다고 해도 언제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질병에 걸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 때까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30절).

이 말씀은 그가 건강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에 죽을병에 걸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는 살릴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력을 다하는 그의 헌신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오히려 그것을 근심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여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 알고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26절).

근심의 순환을 끊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심만 했겠습니까.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에 사로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복돋아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다시 만나 봄으로 기뻐하고 나 또한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를 급히 보냈습니다”(28절).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하고, 근심에서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섯 가지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며 동역자며 함께 군사 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25절).

첫째,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동역자입니다. 여기에는 계급의식이나 권위의식이 없습니다. 셋째, 군사입니다. 용맹스럽게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넷째,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섯 가지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관계도 좋고, 일도 잘하고, 일도 잘해서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디모데가 되어주고,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주고, 사도 바울이 되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황재명 목사의 이사야서 산책 6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유대교의 경전 ‘타나크’(TaNaKh)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율법서(Torah; 모세오경), 예언서(Nebhim;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성문서(Kethbhim;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터,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이다. 기독교에서는 24권의 유대교 경전을 39권으로 분리해 구약성경으로 공포하였다. 특히 구약성경의 예언서는 유대교 경전과 달리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구성되어 있다(대, 소 선지서의 구분은 선지자의 위대함 정도가 아니라 책의 분량에 따른 구분).

구약성경에 쓰인 문체의 형식을 살펴보면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주로 산문체로 써져있고, 시가서와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는 대부분 운문체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예언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인 이사야서도 전반적으로 운문체 형식으로 기록되었으나, 남유다의 두 왕들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7장(아하스 왕)과 36~39장(히스기야 왕)은 산문체의 이

야기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사야는 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운문체로 전개해 나가다가 갑자기 산문체의 역사적 이야기를 두 곳에서나 삽입하였던 것일까?

첫 번째 이사야 7장과 36~39장을 살펴보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중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먼저 두 곳의 문맥적 흐름을 보면 외세(아람과 앗수르)의 침략 속에 두 왕 모두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해 “두려워하지 말라”(사 7:4, 37:6)고 공통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 문맥 속에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은 바로 두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의 모습이다. 아하스 왕은 자신을 찾아온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 권세(이방 동맹군)를 의지하는 불충과 패역의 모습을 보인 반면,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과는 달리 스스로 먼저 이사야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36~37장은 산헤

림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남 유다를 향해 항복을 권유하는 ‘말’(독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누구의 말을 듣고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하스 왕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히스기야 왕의 대조를 통해 전반부(사 1~3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죄와 심판이 임할 것을, 후반부(40~66장)에서는 회복과 소망의 구원 메시지가 전해질 것을 각각 예시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 이사야 36~39장은 열왕기하 18장 13절~20장 19절과 동일한 본문으로, 이사야서에 있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문학적인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사야 7장 말미에 예고된 앗수르의 출현과 침략은 이사야 36장에 들어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바로 그 앗수르로부터의 구원 약속은 이사야 37장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39장은 바벨론의 침략 및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배

를 예고하고 있고, 40~66장에서는 바벨론의 패망 및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문맥적 흐름은 연대기적으로 먼저 일어난 38~39장의 사건이 36~37장 뒤에 배열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사야 7장과 36~39장에 기록된 두 왕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음’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 운문체의 예언 속에 역사적 사실의 산문체가 포함된 근본적인 이유이다. 더 나아가 이사야서의 전반적 구성 및 목적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열쇠를 제공한다. 오늘날 이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고백,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도전으로 연결되고 있다.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꿈꾸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꾸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과워워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어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꾸어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연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블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 안민경 간사(02-3215-3523)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그 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OSOM27기 장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훈련기간: 2017년 2월 13일~6월 3일

접수마감: 2017년 1월 12일

신청: http://www.visionvillage.org

문의: 031-331-8182

2017 살롬예루살렘 300용사 모집

장소: 이스라엘(예루살렘, 하이파)

기간: 2017년 5월 27일~6월 3일 7박8일

모집인원: 300명(국내외 포함)

참가신청: kibi.or.kr 또는 KCSI한국본부

문의: 02-792-7076 / 010-7927-7075

온누리 세계관학교 세미나

내용: 자기주도적 학습법, 자녀와 부모

관계, 기독교 세계관 교육

일시: 11월 3일~17일(매주 목) 19:30~21:30

장소: 서빙고 신관 지하 2층 시온홀

신청: 아이스쿨 / 세계관 학교

문의: 복인수 간사 (02-3215-3533)

성인 창조과학스쿨

대상: 일반 성도 및 공동체

일시: 10월 30일~11월 20일 주일 14~16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

문의: 010-3869-7785

예사부 봉사자 모집

모집: 찬양인도자, 율동

시간: 주일 11시 20분

문의: 찬양인도자(010-4201-3113)

열린다성경스터디 투어

내용: 이스라엘 구약성경 투어

(2017년 1월 21일~29일)

터키-그리스 신약성경투어

(2017년 2월 26일~3월 5일)

문의: 010-4902-1022

저출산대책포럼 새 이름 공모

내용: 합치고, 공감할 수 있는 한글, 영어

이름(상표등록 가능해야 함)

날짜: 11월 13일까지

시상: 대상 1명(200만원 상당 여행상품권),

우수상 3명(100만원 상당 여행상품권)

접수: greenbi55@naver.com

문의: 송종환 장로(010-3333-3010)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을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을(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사랑홀(숙명여고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블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CGNTV 팟캐스트



하나님의 사랑처럼 깊어지는 가을, 오디오 말씀과 찬양을 라디오처럼 들어보세요!
스마트폰 다운로드로 언제 어디서나 마음과 영을 풍성하게!



CGN 캐스트 바로가기

1 이재훈 목사의 테마 설교

주일설교의 은혜
예배 때 감동 그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성경일독 365

365일, 매일 10분이면
성경전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두란노 이야기성경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90개의 성경이야기
엄마가 곁에서 읽어주듯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4 찬양으로 토닥토닥

힘이 필요한 하루
연속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위로와 평안을 선물합니다.



CGNTV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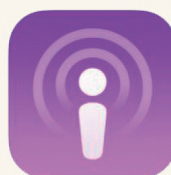
1. CGNTV 홈페이지에 우측 상단의
CGN 캐스트 클릭!
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안드로이드



1. 스마트폰에서 [Play 스토어] 실행
2. 검색창에서 [캔디팟캐스트] 설치
3. 원하는 프로그램 청취 및 다운로드

아이폰



1. 스마트폰에서 [App Store] 실행
2. 검색창에서 [Podcast] 설치
3. 원하는 프로그램 청취 및 다운로드